법원사람들

10

2026 October Vol. 498







익어가는 지혜
깊어지는 신뢰

대한민국법원

QR코드를 통해
법원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over story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공정한 판결의 뿌리를 다지는 사법연수원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배움을 제공하는 사법연수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간 국제사법협력센터의 해외 사법 교류 발자취도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사람들

2026 October Vol. 498

발행일
2026년 10월 1일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편집인
공보관 이도행
편집총괄인
홍보기획관 이우탁
편집기획팀
곽인욱, 유수연, 백지연, 신유림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기획·디자인·편집
디앤씨컴퍼니



법원의 울림

06
빛나는 얼굴
희망찬 사법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법 신뢰의 튼튼한 뿌리
사법연수원

12
현장의 시선
사법연수원

14
근처 한 바퀴
단풍과 꽃으로 물들이는 가을날의 산책길
일산호수공원 나들이

16
맛있는 선택
강의실 밖에서 만나는 완벽한 휴식
연수대상자를 위한 미식 큐레이션

18
성장의 발자취
작은 연결이 모여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사람들의 하모니

24
사유의 순간
시선의 단식
15초 미로 탈출기

28
시간의 기억
Racing The Planet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달리다

34
마음의 온기
법원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36
조사심의관 코너
'도서관의 올림픽' WLIC와
'국제 법률정보의 요람' IALL에서 만나는
사법의 미래

42
법원의 하루
사법연수원의 살림꾼
강수빈의 알뜰한 하루



일상의 여운

44
우리집 진짜 주인
강아지 하나, 아이 둘, 행복 셋

48
이달의 필사
일상을 깨우는 가을의 안온함

50
Movie Pick
신화의 서사를 넘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역동적 모험

52
Smart Court
혼자 검토하지 마세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문서 검토

54
독자 참여
500호 발간 기념 독자 참여 공모전

대법원 채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0월,
배움이 쌓여
정의가 되는 곳에서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10월입니다.
긴 계절을 견뎌낸 씨앗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오랜 시간 쌓아온 교육의 경험도 단단한 지혜로 영글어 갑니다.

과거의 경험 안에서 미래를 싹틔우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사법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곳.
사법연수원의 강의실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신임 법관의 첫걸음을 다독이고, 기성 법관의 전문성을 갈고닦으며,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은 오늘도 배움의 터전을 묵묵히 가꾸어 나갑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키워온 지혜의 열매는
오늘도 공정한 재판의 씨앗이 되어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립니다.
배움이 쌓여 법관의 판단이 깊어지고, 깊어진 판단이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익어갑니다.

당신의 치열한 연구와 끊임없는 배움이 법원 곳곳으로 스며들어
공정한 재판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그리고 그 열매가 국민의 삶에 따뜻한 신뢰로 오래도록 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October



희망찬 사법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법 신뢰의 튼튼한 뿌리
사법연수원

(왼쪽부터) 이형준 연수과장, 김민성 사무관, 김시철 연수원장, 김은경 행정관,
정기종 교수(판사), 이은우 보안실장, 이재인 주무관, 김민영 주무관

사법연수원은 과거 법률가를 길러내던 요람에서 오늘날 법관,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임법관의 첫걸음을 다잡고, 기성법관의 역량을 갈고닦으며, 여러 법률가와 시민에게까지 법의 가치를 전하는 사법연수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사법교육의 산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총 20,410명의 사법연수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사법교육의 구심점을 이뤄왔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수료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초를 닦았고, 법률문화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여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법관의 평생교육과 사법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비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신임법관연수'는 새롭게 정립된 사법연수원에게 주어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임용 이후 재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장기 신임법관연수'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2명의 신임법관을 대상으로 정규 장기 연수를 실시했다.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임법관연수에서는 민사·형사·공법 등 재판실무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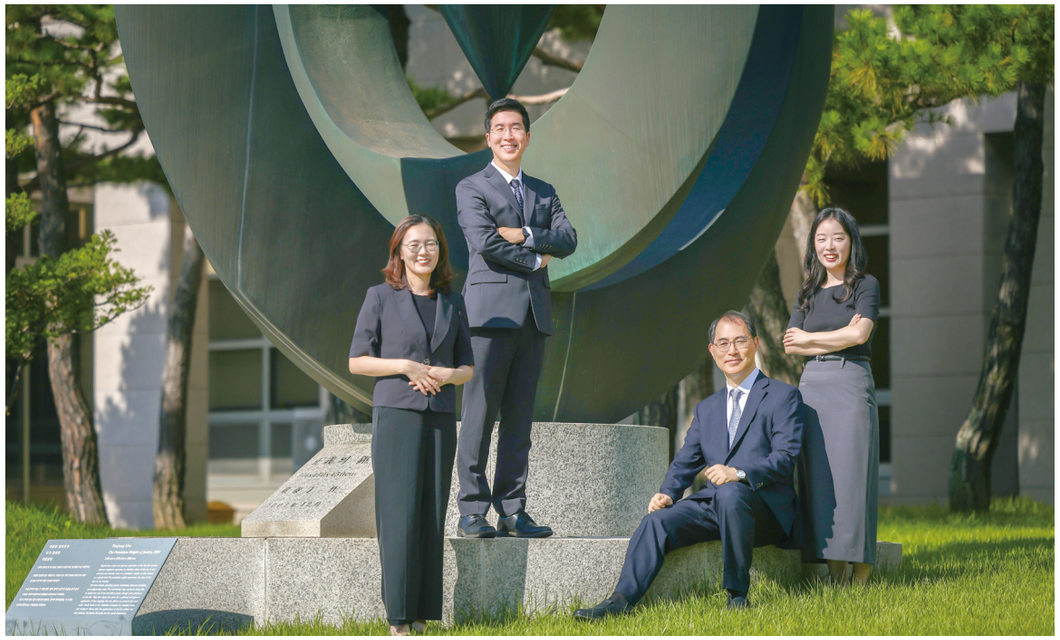


사법연수원 청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기성법관의 전문성과 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관연수도 사법연수원의 중요한 축이다. 2025년에는 재판실무와 전문 분야 등을 아우르는 총 70개의 기성법관연수 과정을 운영했으며, 총 7,075명이 연수에 참가해 역량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온라인 연수의 활용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법관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중이다.

교육과 연구, 재판실무 지원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는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재판실무 연수에서는 민사·형사·공법·가사뿐 아니라 노동, 건설, 의료, 도산, 지식재산권, 조세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전문 분야 연수에서는 환경, IT, 언론, 장애, 인공지능 등 법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주제까지 폭넓게 살핀다. 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재판실무편람이나 심화 연구 등과 연계하여 재판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다시 일선 재판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경 행정관, 정기종 교수(판사), 김시철 연수원장, 김민영 주무관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57명의 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 후보자를 교육했으며, 연수 기간도 제도 도입 초기 20~30일 수준에서 현재 약 2개월까지 확대되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 또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현직 법관과 사법보좌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률 전문과목과 실무교육을 받으며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여 나간다.

사법연수원은 이렇게 다층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삼고 있다.

예비 법조인부터 시민까지 사법교육의 지평을 넓히다

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률이론과 실제 재판실무를 연결하는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 11명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에 출강하여 더욱 균질하고 체계적인 재판실무 교육을 제공 중이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재판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민사·형사 사건을 소재로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구술변론을 준비해 실제 재판과 동일한 과정으로 변론 경연을 펼친다. 최근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76개 팀, 528명이 참가하며 그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 역시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고양시 중·고등학생 대상 법조직업 체험, 경기공유학교를 통한 심화 법교육 등이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법과 법원을 이해하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더불어 법원의 역할과 기능,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경험이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교육 직무연수도 실시 중이다.

사법연수원 법률아카데미는 교육청 장학사, 법조 출입기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필요한 직역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된 법조 출입기자 대상 프로그램은 1박 2일 과정으로 확대하여 취재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법원 공보관과 기자들이 서로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로 확장해 나갔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

2026년은 사법연수원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교육센터의 출범이다. AI·디지털 기술이 재판실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체계적인 AI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세계 수준의 사법 AI 리터러시 교육 허브'를 목표로 인공지능교육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의 교육은 단순히 생성형 AI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공정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 등 사법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와 활용 기준을 함께 익히는 한편,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통합 AI 이러닝 프로그램 JETPAI(Judici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AI)를 개발하고, 국내외 사법교육기관 및 AI 전문가와의 협업과 실습형 교육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왼쪽부터) 정기종 교수(판사), 김민성 사무관, 이재인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

2026년 핵심 목표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적 환경까지 함께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꿈꾼다.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재판실무의 지식과 교육 경험은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자양분이 되어왔다. 사법연수원은 이 양분을 신임법관과 기성법관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원과 예비 법조인에게 이어주고, 매년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과 같은 연구서와 실무지침서로 축적하며, 국민을 위한 법교육으로 확장해 나간다.

과거의 경험 안에서 미래를 싹틔우는 곳.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법연수원의 앞날이 기대된다.



(왼쪽부터) 이은우 보안실장, 이재인 주무관, 김민영 주무관, 이형준 연수과장

우리의 **교육**과 **연구**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사법연수원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법연수원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입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현시대 사법연수원의 책임은 오랜 경험과 새로운 변화가 결국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판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사법부 전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은 결국 현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연구는 법관의 전문성과 통찰을 높이고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법연수원은 사법부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법관과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세심하게 듣고 그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연수에서 축적된 논의가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 연구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일선 재판에 활용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법연수원의 업무는 어느 하나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협업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나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내부의 의견뿐 아니라 일선 법관과 교육 대상자, 외부 전문가의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되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행해 나가는 조직, 직위나 업무와 관계 없이 필요한 의견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사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격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연수는 강의실에서 보이는 몇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수계획표 한 장, 법교육 한 번에도 여러 구성원의 세심한 노력과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우리 사법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과 연구가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I N T E R V I E W

시간이 머무는 곳

청연재 카페와 정원

청연재 카페와 정원은 사법연수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연수원을 찾은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낯선 법관 생활의 고민과 기대를 나누고, 다시 연수를 위해 이곳을 찾은 법관들은 초록빛 정원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을 문득 떠올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친 머리를 식히며 커피 한 잔을 마시던 곳으로, 누군가에게는 동료들과 체육행사를 함께하며 웃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사법연수원의 역할도,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달라졌지만 청연재 카페와 정원은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휴식과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작은 추억의 공간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배우는 곳

인공지능교육센터

인공지능교육센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법률과 판례, 기록에 익숙한 법관과 재판연구원들도 이곳에서는 잠시 다시 학생이 되어, 낯선 인공지능을 직접 접하고 하나씩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다가 서로의 결과를 들여다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술을 재판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공정함과 책임이라는 사법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고 서툰 실습이지만, 이곳에서 오가는 질문과 시행착오는 언젠가 달라질 재판의 일상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다가올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설렘이 머물러 있습니다.



단풍과 꽃으로 물들이는 가을날의 산책길 일산호수공원 나들이

글. 편집실

선선한 바람이 두 뺨을 스치는 오후, 고양시의 푸른 숨결인 일산호수공원으로 들어서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바람결에 은은한 꽃향기가 실려 오며 오감을 깨운다.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산책로와 다채로운 화훼 문화가 피어나는 10월의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어 보자.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호숫가 산책

- 가벼운 나들이 코스(1시간): 시계탑 ›› 장미원 ›› 달맞이섬 ›› 메타세쿼이아길 ›› 민속그네 ›› 애수교 ›› 주제광장
- 자연 속 힐링 코스(2시간): 고양꽃전시관 ›› 메타세쿼이아길 ›› 선인장 식물원 ›› 노래하는분수대 ›› 장미원



단풍빛 물결 따라 거니는 가을길 일산호수공원

1990년대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던 시절, 한강을 끌어와 빚어낸 30만㎡의 인공호수는 개장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고,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도심 속 자연으로 손꼽힌다.

메타세쿼이아길을 포함한 9.1km의 산책로는 완만하고 널찍해 걸음 속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느긋하게 한 바퀴를 완주할 수 있다. 천천히 걸으면 한 시간 반 남짓이 소요되는데, 20만여 그루의 수목이 만들어 내는 짙은 그늘 아래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10월 중하순이면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노을 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호수 수면 위로 내려앉으며 단풍빛과 뒤섞이는 순간은 한울광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잔잔한 호수 위에는 달맞이섬이 조용히 떠 있다. 섬 위에 세워진 팔각정에 올라서면 탁 트인 수면과 그 너머로 이어지는 공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나면 공원의 표정은 다시 한번 바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분수대를 본떠 만든 노래하는 분수대가 매일 밤 가동되는데, 최고 35m까지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악에 맞춰 500여 가지 형태로 변주되는 광경은 낮의 산책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선사한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되니 올해 마지막 분수를 보고 싶다면 발길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의 울림 고양꽃전시관

호수공원 한편에 자리한 고양꽃전시관은 평상시 잔잔한 휴식을 안겨주는 공간이다. 1층에는 플라워북카페, 플라워숍, 수석 전시관이, 2층에는 플라워아카데미와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산책 중 잠시 들러 쉬어가기에 좋다.

계절 축제가 열리는 봄과 가을이 되면 고양꽃전시관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봄마다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전시관 안팎을 온통 꽃으로 물들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원예 박람회답게 형형색색의 꽃들이 실내외를 가득 채우고, 화사한 봄볕 아래 공원 전체가 생동감으로 넘쳐난다. 가을에는 한층 차분하고 깊은 꽃 축제를 만날 수 있다. 10월경 열리는 고양가을꽃축제 기간에는 전시관 실내 전체가 가을꽃과 정원 전시로 가득 채워지고, 야외 광장에서는 테마정원과 플라워마켓, 수상꽃자전거 체험장 등이 함께 운영된다. 봄의 화사함 대신 가을만이 줄 수 있는 깊고 그윽한 꽃의 정취가 한가로운 호숫가를 가득 채운다.

호수를 감싸 안은 단풍길의 고즈넉함과 고양꽃전시관이 안겨주는 가을 꽃빛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산호수공원. 붉은 노을이 호수 위로 가만히 내려앉는 10월의 저녁,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걸으며 차분하게 계절의 여운을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의실 밖에서 만나는 완벽한 휴식

연수대상자를 위한 미식 큐레이션

빡빡한 연수 일정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단연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기분 좋은 고민이 시작될 때다. 낯선 공간에서 긴장한 채 강의를 듣다 보면 금세 지치기 마련이지만, 다행히 우리가 머무는 사법연수원 근처에는 피로를 타파해 줄 미식 공간이 두루 몰려 있다.
순대국의 정석부터 나폴리 화덕의 불맛까지,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한 끼의 행복을 함께 따라가 보자.

식당 추천. 사법연수원 김영상 행정관, 최성민 행정관



진한 토종 육수와
시원한 섞박지의 정석

전날 동기들과의 회식이 과했거나, 오전 내내 쏟아진 정보량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면 주저 없이 이곳, '조양토종순대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장항2동 주민센터 앞 금강프라자 지하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이 식당은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순대국 명가다. 그만큼 점심시간엔 주린 배를 채우려는 직장인들로 순식간에 만석이 되니 얼큰한 해장이 필요하다면 조금 서둘러 움직일 것을 추천한다.
잡내 하나 없이 진득하게 우려낸 국물은 한 숟갈만으로도 속을 데워주고, 찰순대가 아닌 속이 꽉 찬 토종 순대와 넉넉한 머릿고기는 그릇을 든든하게 채운다. 기본으로 양념장(다대기)이 얹어져 나오는데, 칼칼하게 즐기고 싶다면 그대로, 육수 본연의 담백한 맛을 원한다면 주문 시 "다대기는 따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순대국의 화룡점정은 바로 금직하고 시원하게 익은 섞박지! 이 아삭한 한 점을 베어 무는 순간 어깨를 누르던 피로가 소르르 부서지며 오후 강의도 거뜬하게 버티게 하는 힘이 솟는다.

알려드립니다

조양토종순대국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72 금강프라자 지하1층
- 토종순대국 11,000원, 머릿고기 25,000원, 모듬순대 25,000원
- 월~금 11:00~20:00, 토 11:00~14:00
  *브레이크 타임 월~금 15: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 031-901-8569
- 김영상 행정관

챔피언십 우승 메뉴가 증명하는
참나무 장작 가마가 빚어낸 나폴리의 불맛

연수원 식당의 익숙한 메뉴가 조금 물리는 날에는 색다른 미식을 즐기기 위해 맛집으로 정평이 난 '포폴로 피자'로 발걸음을 옮긴다.
참나무 장작 가마에서 고온으로 순식간에 구워낸 포폴로 피자의 도우는 거뭇하게 그을린 겉면과 쫄깃한 속살의 대비가 일품이다. 이 집의 자랑, 2023년 카푸토컵 나폴리 피자 한국 챔피언십 우승에 빛나는 시그니처 메뉴 '포폴로 클라시카'는 꼭 맛보아야 할 메뉴다. 토마토의 상큼한 산미와 구운 가지의 깊은 풍미, 부드럽게 녹아드는 부라타 치즈의 크리미함이 입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한 입 베어 물면, 챔피언의 피자다운 풍부한 맛이 퍼지며 오전 강의로 쌓인 피로를 단숨에 잊게 만든다.
높은 인기만큼 대기 또한 길기 때문에 오전 11시 30분, 캐치테이블 앱의 원격 줄서기 오픈 시각에 맞춰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점심시간이 빠듯하다면 포장을 주문한 뒤 일산호수공원에서 피크닉 같은 점심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포폴로 피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센트럴플라자 102·103호
- 포폴로 클라시카 27,500원, 마르게리타 콘 부팔라 19,200원, 부라따 에 프로슈토 32,600원
- 화~일 11:30~21:30
  *브레이크 타임 화~금 15:30~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0507-1409-9337
- 최성민 행정관

세계를 만나고, 사람을 잇고, 함께 성장하다

작은 연결이 모여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글.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황선영 행정관(국제업무 전문관) **사진.** 홍승진

사법연수원은 세계 각국과의 사법 교류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법관연수를 통해 재판 현장에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했다. 국제사법협력센터는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활발히 공조하여 국제협력의 폭을 넓혀 왔으며, 마침내 동북아시아 최초로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세계 사법의 눈은 대한민국을 향한다. 그동안 우리가 발전시켜 온 사법 시스템과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이 사법연수원을 찾고 있다. 세계를 만나고, 사람을 잇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온 시간.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의 성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상단 정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은실 초빙교수, 이정원 주무관, 황보윤 조사위원, 김영지 주무관, 김선아 교수(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윤경 사무관, 강동원 기획총괄교수(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선영 행정관, 이준명 수석교수(고등법원 판사), 박선민 교수(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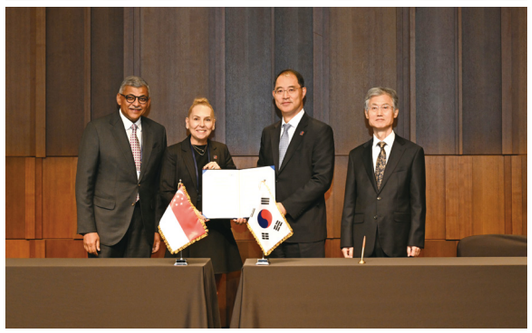
Chapter 1. 다시 연결하다
멈췄던 국제교류의 새로운 시작

2013년 5월 9일 문을 연 국제사법협력센터는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대면 국제교류가 중단되면서 공고히 이어오던 친교를 잠시 멈추어야 했다.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로 향하는 길이 다시 열렸으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소원해진 사이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었다.

2023년, 사법연수원에 국제업무 전문관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교류해 온 해외 사법기관과의 인연을 다시 살피고, 연락이 끊겼던 기관에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새로운 국가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국제협력의 폭을 한 뼘씩 더 넓혀 나갔다. 그렇게 멈춰 있던 국제교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욱 견고해진 연결은 이후 국제적인 사법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Chapter 2. 크게 도약하다
동북아 최초 IOJT 국제콘퍼런스



재연결의 과정에서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하는 '2024년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였다. 세계 각국의 사법연수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 했다.

각국 참가자와의 소통부터 프로그램 진행과 의전, 통역, 숙박, 차량, 행사장 운영까지 수많은 업무가 동시에 요구되었다. 그동안 여러 연수 및 방문 행사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물론, 구성원 모두의 전문성과 헌신이 한꺼번에 필요한 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명하게 답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쌓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국제사법협력센터 공동의 노하우가 되었다.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가 무사히 막을 내렸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쌓아온 국제사법협력의 경험과 역량이 빛나는 성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는 우리에게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Chapter 3. 세계로 확장하다
배우러 가던 사법부에서, 배우러 오는 사법부로

국제사법협력센터의 성장과 함께 국제 사법 교류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한때는 우리가 선진 사법제도를 견문하기 위해 외국을 찾아갔으나,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각국의 사법기관이 대한민국 사법의 문을 두드린다.

비단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소송 운영 경험을 공유받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찾고 있다.

이제 'K-Court'에도 세계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한 셈이다. 교류의 내용 또한 깊어졌다. 단순한 방문과 친선 도모를 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 전자소송, 사법정보화, 디지털 전환,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향상 등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한 번의 만남은 새로운 연수와 협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국가와 기관도 계속 넓어져 간다.

최근 3년간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진행한 주요 국제교류 일정은 70여 회, 대상 국가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25개국에 이른다. 각국 사법기관의 방문과 연수, 국제회의와 세미나, MOU 체결, 해외 기관 방문 등 다양한 국제교류가 쉼 없이 이어져 왔다.

어느덧 국제사법협력센터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국제협력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Chapter 4.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국제행사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따라붙는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참가자 변동, 통역과 항공 문제, 행사 직전에 들어오는 새로운 요청까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꼭 예상 밖의 일이 생긴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고, 웃으며 넘기기엔 꽤 버거운 날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해 해외 인사를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결국은 답을 찾아야만 한다.

누군가는 상대 기관과 연락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누군가는 현장을 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필요한 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정신없이 함께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행사는 끝이 나 있다.

당시에는 진땀을 뺐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된다. 행사 하나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마다 쌓여가는 한 사람의 경험은 모두의 노하우가 되고,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낼수록 자신감도,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어져 간다.

결국 지금의 국제사법협력센터를 만든 것도, 여기까지 성장하게 한 것도 사람이었다. 서로를 믿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걸어온 시간.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장 큰 자산이다.

Chapter 5. 우리의 발자취를 담다
국제사법협력 기념관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만나고 교류하며 쌓아온 시간은 이제 '국제사법협력 기념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담겼다. 교류의 첫 순간부터, 힘을 합쳐 치른 국제행사들, 마음이 담긴 기념품까지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이어온 교류와 협력의 기록,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한 곳에 모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나온 시간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 국제사법협력센터의 역사가 켜켜이 기록된 기념관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만남과 교류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Epilogue.

우리의 한마디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

국제사법협력센터가 걸어온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라본 자리도, 기억에 남은 순간도, 얻게 된 성장도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뛰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네 사람에게 국제사법협력센터에서 근무하며 느낀 바를 물어보았다.



이준명 국제사법협력센터장

국가마다 법 제도는 다를지라도 전 세계의 사법과 법관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점점 더 가깝게 연결될수록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은 더욱 깊고 넓고 열린 국제적 시야와 소양을 함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국제업무 수행 과정에서 더욱 성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사법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 역량을 국제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아 국제팀장

국제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제가 팀장을 맡아도 국제사법협력센터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센터장이신 이준명 수석교수님의 리더십과 저희 팀의 자랑인 돈독한 팀워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야를 가리지 않는 업무에 대한 열정도 빼놓을 수 없지요. 제게 바람이 있다면 국제사법협력센터의 활동을 사법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그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황선영 국제업무 전문관

세계와 우리 사법부를 잇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외국 법관들이었지만, 어느새 다시 만나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마음은 통했고, 결국 국제업무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끝에는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이 남았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김영지 국제업무 주무관

사실 고백하자면,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법원공무원이 된 뒤 전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에서 뜻밖에 전공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연수 때 만났던 판사님들을 필리핀 출장에서 다시 만나는 신기한 인연도 생겼습니다. 좋은 분들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한 국제사법협력센터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직장생활에서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의 단식
15초 미로 탈출기

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문선관 주무관



나의 아침은 손가락의 가벼운 까닥임으로 시작하고, 잠들기 직전 침대에서도 똑같이 끝난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내게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이자, 가장 지독한 기생충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주말과 퇴근 후 일과는 비교적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활동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비디오게임 외에도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공부, 독서, 운동 등을 꾸준히 병행했었고, 이러한 생활이 주는 성취감이라는 보상은 꽤나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좋아서 선택한 취미와 활동들이 지루한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무언가를 읽거나 공부하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꾸준히 다니던 체육관은 결석하는 날이 점점 잦아졌다.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게임을 하면서도 변화가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소설과 같은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게임들을 주로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흡이 긴 서사와 영상들은 나에게 있어 오히려 게임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변질되어 있었고, 10분짜리 컷신(cutscene)을 보는 것도 견디지 못해 영상이 나올 때마다 '스킵' 버튼 위로 손가락이 먼저 달려 나갔다. 그러다가 결국 게임기를 끄고 관성에 이끌리듯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켠다.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최악의 습관이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로 대표되는 숏폼(Short-form) 콘텐츠들의 범람 속에 나의 엄지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올린다.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15초에서 30초 정도 남짓한 이 짧은 영상들에는 자극적인 유머, 짧게 편집된 영화 결말, 화려한 게임 플레이 하이라이트들이 담겨 내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투척되었다. 손가락을 위로 튕길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쾌감이 쏟아진다.

"딱 10분만 보고 일어나자."

그 다짐이 무색하게 정신을 차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경험을 몇 번씩이나 했었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이 방전될 때까지 숏폼 영상을 볼 때가 많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액정 화면은 마치 블랙홀처럼 나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어떻게든 겨우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이미 파편화된 정보들로 가득 차서 정작 내 생각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물을 끓이면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인지하지 못한 개구리가 결국 죽는다는 유명한 실험처럼, 사고가 차단된 나의 뇌는 그렇게 반사적 수용이라는 끓는 물 속에 갇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점차 일상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을 갈 때나 일과 중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감촉을 찾았다. 이러다 보니 어느덧 글을 읽는 능력이 점점 퇴화해 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업무 관련으로 실무제요나 판례를 찾아볼 때, 문장이 길어져서 문단을 넘어가게 되면 예전만큼 독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고, 난독증 환자처럼 눈앞에서 문장이 겉돌았다.

결정적인 균열은 전문 과정 수강을 위해 찾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에서 일어났다. 빠르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의 뇌는 숏폼 영상들처럼 2배속이 아닌 정배속으로 진행되는 교수님의 강의를 '지루함'을 넘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필기하는 소리들은 나에게 왠지 모를 조급함만을 불러일으켰다. 한 교시에 50분 남짓 진행되던 강의였지만, 교시마다 강의 도중 한 번 이상은 강의실 밖을 나갔다 돌아왔던 것 같다. 당시 나의 집중력과 인내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강의가 끝나고 평가를 보기 전날 밤, 배정받은 생활관 화장실 세면대에 서서 거울을 보았다. 한 시간의 밀도를 견디는 다른 이들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의 초라함이 거울 너머로 일렁거렸다.

"모두에게 패스가 당연한 내일의 시험조차 너에게는 과분한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거울 속의 나는 생기 없는 눈을 하고서 이처럼 말하는 듯했고, 그동안 애써 모른 척 마주하지 않았던 도파민 중독자인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이 '인공적인 마약'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투쟁의 방법으로 단식하는 이들처럼, 나는 '시선의 단식'을 감행했다. 스마트폰에서 숏폼 관련 앱들을 삭제했고, 식사 중은 물론 기상 직후와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화면을 흑백 모드로 전환해 시각적인 유혹을 차단했다. 이것은 알고리즘이 만든 자극을 거부해 도파민에 길들여진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첫 사흘은 지옥 같았다. 금단 현상은 물리적인 통증처럼 다가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화장실을 가는 5분,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쉬는 10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고 지루했으며, 머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지루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로 했다. 지루함은 뇌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회전' 시간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그렇게 나는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들었고, 점심 식사 후에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장 몇 페이지를 넘기는 데도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고요해진 내 머릿속에서는 활자들이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산책할 때는 비로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의 색감이 눈에 들어왔다. 숏폼 영상 속의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화려함이 아닌,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색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도파민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열쇠는 '비움'에 있었다. 이전에 나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만족감에 취해 머릿속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영상들을 때려 넣었다. 하지만 뇌에 자극적인 잔상들이 빠져나가 고요한 빈터가 생긴 지금, 그 공간에 묻혀있었던 중요한 생각들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고, 매일 밤 그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했다.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던 내 생각들이 문장이 되어 종이 위에 안착했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음을 실감했다.

얼마 전, 나는 또다시 법원공무원교육을 수강했다. 이번에는 현장 강의가 아닌 원격교육으로 신청하여 수강했고, 모니터 속 교수님의 음성은 여전히 정배속으로 흘렀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다. 교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 중간마다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곱씹으며 나만의 생각과 답을 머릿속에 정리해 나갔다. 남들에겐 당연한 이 '패스'의 과정이 내게는 무너졌던 자아의 성벽을 한 칸씩 다시 쌓아 올리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여전히 나의 아침은 손가락의 까닥임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손가락은 더 이상 차가운 액정 속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아침을 알리는 아날로그 자명종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미로를 헤맸던 손가락이 이제는 정성스럽게 이불깃을 매만진다. 이렇게 침구를 정리하며 만드는 작은 성취감은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15초의 소음이 사라진 방 안에서, 이제야 나는 진짜 세계의 박동을 듣는다.





Racing The Planet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달리다

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빈태욱 지원장



문명의 불빛이 꺼진 아타카마 사막 위로
은하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정전이라는 불편함이 선물한
그 압도적인 우주 앞에서,
나는 다시금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1. 움직이는 축제: 여정의 서막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 주어서 젊은 시절 한 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당신이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것이다.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 헤밍웨이 1950년 인터뷰 중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 파리가 움직이는 축제가 되어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것처럼 내게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움직이는 축제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쏟아질 듯한 아타카마 사막의 압도적인 밝기와 숫자의 별들이, 끊임없이 오르던 샌드듄과 샌드듄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이, 끝없이 이어지던 소금 평원이, 아름다운 사막의 일출과 일몰이, 만년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계곡이, 사막에서 핀 작은 꽃들이, 바람과 세월이 만들어 낸 달의 계곡이 떠오르며 가슴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2024년 7월 말, 나는 인천에서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결제했다. 한국에서 땅을 파고 수직으로 내려가면 나온다는 지구 정 반대편의 나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산티아고까지,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꼬박 하루가 넘는 대장정이었다. 참가비는 성과상여금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환율은 무섭게 치솟고 있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다. 결제 버튼을 누르던 그날의 떨림은 사막의 폭염보다 뜨거웠다.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은 2025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서바이벌 경기다. 주최 측이 제공하는 텐트와 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과 필수 장비 40여 가지를 모두 스스로 짊어지고 완주해야 한다. 아타카마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다. 낮에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40도의 폭염이 지면을 달구지만, 새벽에는 기온이 0도 근처로 급강하하여 침낭 속에서도 이가 부딪힐 정도로 춥다.

2. 지구 반대편으로의 긴 여행 (2025. 3. 26. ~ 27.)

지구 반대편으로 향한다는 설렘과 남미의 불안한 치안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사막에 있는 일주일 동안 급격한 체중 감소가 예견되었기에,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살찌는 걱정'을 내려놓고 배를 채웠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2시간, 다시 5시간의 대기 후 산티아고까지 10시간, 그리고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칼라마 공항에 내려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San Pedro de Atacama)까지 버스로 이동하기까지 총 44시간이 소요되었다.

대회 전날, 마을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는 소동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랜턴을 들고 화장실을 가려 방을 나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문명의 불빛이

사막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을 더 버려야 할지 고민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꺼진 아타카마 사막 위로 은하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정전이라는 불편함이 선물한 그 압도적인 우주 앞에서, 나는 다시금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다.

3. 레인보우 밸리의 첫 밤 (2025. 3. 29.)

해발 3,200m에 위치한 제1숙영지 '레인보우 밸리'에 도착하자 노란색 대회 현수막과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는 내 심박수를 사정 없이 끌어올렸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장비 검사 결과 내 배낭의 무게는 14kg.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무게에 잠시 걱정이 앞섰지만, "매 순간을 즐기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내가 배정된 텐트에는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이 모였다. 4대 사막을 이미 완주하고 다시 도전에 나선 52세 스위스 아저씨 라인홀트, 놀라운 체력으로 여성 1위를 차지한 미국의 엘리스, 그리고 나의 권유로 함께 오게 된 후배 이재현 등 6명이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 우리는 레이스 중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한국식 낙지덮밥과 현지 피자로 '최후의 만찬'을 즐기며 사막의 첫 밤을 맞이했다. 텐트 밖은 영하의 추위였지만, 텐트 안은 완주를 향한 열기로 뜨거웠다.





4. 고난의 시작: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Stage 1: 35.3km)

새벽 5시, 옆 텐트 대만 선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고요한 사막의 새벽을 깨웠다. 첫날은 해발 3,200m에서 시작해 2,600m까지 내려가는 비교적 수월한 내리막 코스였다. 과거 물길이었던 바위 협곡 사이를 지나며 자연이 수만 년 동안 빚어낸 기묘한 조형물들에 감탄하며 사진 셔터를 누르기에 바빴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시작되었고, 14kg의 배낭은 마치 어깨를 자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사막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을 더 버려야 할지 고민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길 위에서 일본인 에미를 만났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밑창이 덜렁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테이프와 끈으로 그것을 고정하고 묵묵히 걷고 있었다. 나라면 아마 신발 탓을 하며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나에게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이라는 진리를 몸소 가르쳐주었다.

캠프에 도착해서 쉬고 있을 때 72세 비키 할머니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굽은 허리로 첫 스테이지를 마친 그녀의 모습에 전 참가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첫 스테이지를 마친 후 무게를 줄이려 보조 배터리와 약통, 맥가이버 칼까지 재활용 통에 던져버렸다. 비워진 배낭만큼 내 마음도 가벼워졌다.

5. 계곡과 산은 시가 되고 (Stage 2: 37.5km)

둘째 날은 아타카마 레이스의 백미였다. 안데스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차가운 협곡을 20여 차례나 가로질러야 했다.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나는 주저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차디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젖은 신발 안으로 미세한 모래가 들어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능선 위에서 바라본 붉은 산군과 설산의 조화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아타카마의 상징인 거대한 듄(모래언덕)을 미끄러지듯 달려 내려가는 순간은 이번 대회 최고의 카타르시스였다. 듄에서 만난 독일인 피아(Pia)는 휴대폰도 없이 그저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장관을 눈과 마음속에 온전히 저장하고 싶다고 했다. "위대한 자연이 빚어낸 하나의 아름다운 시." 나는 둘째 날의 일기에 이 풍경을 그렇게 정의했다.

6. 사막의 순례자: 까미노 데 아타카마 (Stage 3: 40.9km)

셋째 날 아침, 이제는 물리기 시작한 라면밥과 짜파게티로 끼니를 때웠다. 대회 20주년을 기념해 스태프인 스테파니 아주머니가 직접 내려준 달콤한 커피가 아니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잠시 인터넷 신호가 잡히는 구간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막의 풍경은 눈물겹게 아름다웠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사무쳤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2~3분마다 모자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며 끝없는 평원을 걸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 길은 2013년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의 메세타 평원을 떠올리게 했다. 몸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쯤 도착한 피니시 라인 근처에는 수경 농장의 노천탕이 있었다. 그곳에서 배영 자세로 둥둥 떠서 바라본 푸른 하늘은 레이스 중 경험한 가장 완벽한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그 밤, 차가운 물기운 때문인지 독한 코감기가 찾아왔다. 선블록을 바른 코 아랫부분만 지워져 윗입술만 탔지만, 듄 너머로 지는 이국적인 일몰은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기에 충분했다.

7. 악마의 발톱과 달리는 이유 (Stage 4: 44.4km)

넷째 날은 이번 대회의 최대 고비인 'Extremely Difficult' 구간이었다. 소금과 진흙이 굳어 마치 '악마의 발톱'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소금 평원이 12.5km나 펼쳐졌다. 지면은 울퉁불퉁해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이 꺾일 듯 위태로웠고, 복사열은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다.

오후 2시, 태양의 정점에서 묵언 수행자처럼 그 평원을 건넜다. 속은 메스꺼웠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 나는 자문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달리는가?' 명예나 건강 같은 거창한 이유는 사라졌다. 결국 남은 답은 하나였다. "나는 내 두 발로 지구라는 행성을 온전히 느끼는 이 여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다.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소금 평원을 통과하고, 사막을 건너왔다는 의미로 피니시에서 스틱으로 노를 젓는 조정 경기 세리머니를 했다.

8. 롱데이: 달의 계곡에서의 야간 비행 (Stage 5: 72km)

마침내 마의 72km 구간인 '롱데이(Long March)'가 밝았다. NASA가 달 탐사 로봇 실험을 할 만큼 기묘하고 삭막한 '달의 계곡(Valle de la Luna)'을 지나는 날이다. 45도 경사의 거대한 모래 언덕을 지그재그로 오를 때는 발이 무릎까지 빠져 한 발을 내디디면 반 발이 뒤로 밀려났다.

사투 끝에 올라선 듄의 정상. 그곳에서 내려다본 아타카마의 파노라마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장엄했다. 나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작은 메모지에 적어 사막의 바람 속으로 날려 보냈다. 친구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 광활한 공간에 닿기를 바랐다.

해가 지고 기온이 급강하할 무렵, 헤드랜턴을 켜고 본격적인 야간 러닝에 돌입했다. 한밤중 달의 계곡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새벽 2시가 넘어 저 멀리 숙영지의 북소리가 들렸을 때, 팀 코리아 5명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9. 감동의 피날레: 산 페드로 입성 (Stage 6: 18.7km)

롱데이 다음 날, 72km를 무려 2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 들어온 69세 빌(Bill)의 모습에 모든 참가자가 텐트 밖으로 나와 축하해 주었다. 허리가 90도로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그의 완주는 그 어떤 선수의 기록보다 위대했다.

마지막 날, 산 페드로 시내로 향하는 18.7km의 길. 발바닥의 모든 물집이 터져 한 걸음이 바늘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마을 입구에서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보내주는 "브라보!" 소리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우리는 대형 태극기를 활짝 펼쳐 들고 위풍당당하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7일 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이 꿈같은 레이스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10. 에필로그: 말하는 대로

2018년 나미브 사막 완주 후 나누었던 "다음엔 아타카마에 같이 가자"라는 후배와의 가벼운 약속이 나를 이 머나먼 칠레까지 이끌었다. 대회를 준비했던 8개월의 설렘과 훈련의 시간은 레이스 그 자체만큼이나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미브 사막과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을 내 두 발로 건넜으니, 이제 내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하라 사막을 꿈꾼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의 삶에도,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행운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사막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내딛는 오늘의 한 걸음이 곧 새로운 사막의 시작이다.

법원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지석 주무관



아기 새가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언젠가 익숙한 둥지를 떠나야 한다. 어미 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기다리며 안전한 둥지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서툰 날갯짓으로 땅에 떨어지거나, 불어오는 바람에 갈피를 못 잡기도 한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와 두려움을 이겨낸 후엔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된다.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직장에 발을 들였을 때의 나 역시 안전한 둥지 안에 머물러 있던 아기 새와 같았다.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데도 망설임이 많았다.

첫 근무지에서 나는 법원 곳곳을 돌며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드렸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과 낯선 부서,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은 내가 이제 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인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기타집행과 경매문건 접수의 업무를 시작했다.

낯선 첫걸음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로 이어졌다. 처음 업무를 접했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진 것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였다. 하나의 문건을 처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고, 비슷해 보이는 문서도 각자의 다른 특징과 이야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채권압류추심 신청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수 서류들을 체크해야 하는 점에서 막막함을 느꼈다. 기타집행과 경매 접수 문건 모두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을 새삼 깨닫게 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경정결정 등 업무의 양을 늘렸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처리하는 업무가 주변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민원 응대를 통해 단순한 서류상의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주변 직원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바쁜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직원들의 태도에 나는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맡은 업무의 흐름을 차츰 숙지하게 되었고, 처음보다 훨씬 침착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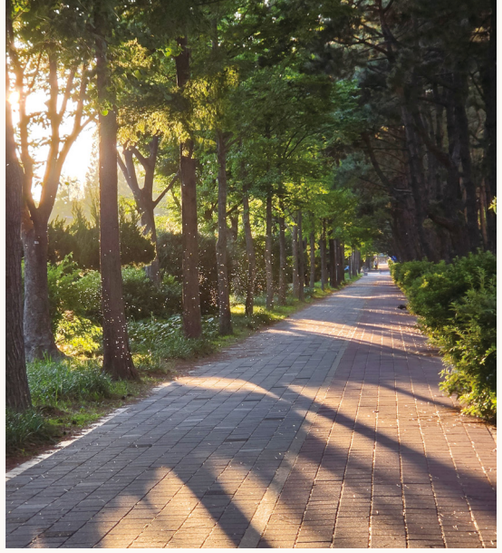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지만, 함께 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법원이라는 조직은 각자 맡은 업무를 혼자서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

그렇게 첫 근무지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전출하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익숙한 둥지를 떠나야 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업무와 정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법원과 업무와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법원 업무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은 있었지만, 새로 맡게 된 약식명령 및 과태료 결정 업무는 이전 업무와 전혀 다른 종류라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에 메모했던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처음과는 다른, 조금씩 성장한 나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업무를 마주할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낯선 업무를 익혀가는 경험 속에서 나는 조금씩 발전하고 단단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두 번의 발령과 새로운 업무는 내게 단순한 직무 변화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먼저 관련 규정과 선례를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한 실수가 발생하면 원인을 되짚어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메모하며 업무를 익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씩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아직도 처음 접하는 업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업무 처리 사례를 찾아보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을 응대할 때도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은 안내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민원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업무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민원인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원공무원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배우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조금씩 둥지 밖으로 나와 스스로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시작된 나의 성장 이야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아기 새의 첫 날갯짓이 서툴고 불안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쌓여 마침내 하늘을 나는 힘이 되듯, 나의 작은 도전과 노력도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날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익숙한 둥지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날갯짓으로 법원이라는 넓은 하늘을 당당히 날아가고 싶다.

‘도서관의 올림픽’ WLIC와 ‘국제 법률정보의 요람’ IALL에서 만나는 사법의 미래

글. 이혜진 조사심의관(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의 업무는
단순한 장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서지학과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IFLA WLIC 2026
BUS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ALL

법원도서관은 일반 도서는 물론 판결과 법률 문헌을 함께 다루는 서고인 만큼,
전통적인 서지학과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법률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보존,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도서관의 역할은 여느 도서관과는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이에 법원도서관은 유수의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문헌정보학 및 법률정보학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매년 참가해 온 두 개의 국제 학술대회,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와 IALL 연례 학술 코스를 소개합니다.
법률정보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두 국제대회가 던진 화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IFLA WLIC 2026

법원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판결을 비롯하여 법률 문헌 등 핵심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지식의 보고(寶庫)입니다. 사법부 본연의 기능인 재판 업무를 최전선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률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관들의 회고에 따르면,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 도서실에 소장된 법률 서적과 '하급심 판결철'을 일일이 열람해야 했고, 난해한 쟁점에 부딪힐 때마다 전문 사서의 서지 탐색 지원에 의존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당연하게 사용하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나 전산화된 도서 검색 서비스가 정착되기 이전의 풍경입니다.



©2024 IALL

이처럼 법원도서관의 업무는 단순한 장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서지학과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나아가 지식정보 환경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첨단 정보기술(ICT)과의 융합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서관은 글로벌 문헌정보학계의 흐름과 전문 분야인 법률정보학의 연구 성과 등을 기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와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의 '연례 학술 코스(Annual Course)'에 참가하여 학술적·실무적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주최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분야 최고의 국제 학술대회입니다.

1927년 설립된 IFLA는 150여 개국의 도서관 협회와 기관, 정보 전문가를 대변하는 비정부기구(NGO)입니다. IFLA 헌장에 명시된 WLIC의 목적은 전 세계 지식정보 접근권 신장, 지적 자유 수호, 문화유산 보존 및 고품질 정보 서비스 표준 확립이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국립·공공·대학·의회·전문도서관 사서, 정보과학자, 시스템 개발자, 정책 입안자 등 3,000~5,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식정보 생태계의 대표적 연례 행사입니다.

최근 WLIC는 '영감, 참여, 역량 강화, 연결(Inspire, Engage, Enable, Connect)', '협력과 실천으로서의 도서관(Let's work together, Let's Library)', '지식의 결합과 미래 구축(Uniting Knowledge, Building the Future)' 등의 의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법원도서관 백규재 조사심의관이 법원도서관의 연혁과 『판례공보』 발간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사법 정보 생산 체계를 소개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법률도서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ALL)가 주관하는 연례 학술대회는 전 세계 법률정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전문 협력망입니다.



1959년 미국 뉴욕에서 창설된 IALL은 외국법·비교법·국제법(FCIL: Foreig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접근성 증진을 지향합니다. IALL 연례 학술대회의 공식 명칭인 '국제법 및 법률정보 연례 학술 코스(Annual Course on International Law and Legal Information)'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학술대회는 단순 회의를 넘어 개최국의 실정법 체계와 사법제도, 국제법 쟁점, 법률정보기술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 또한 법률도서관의 사서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 로스쿨, 로펌, 국제사법기구의 법률정보 실무자와 연구자 150~250여 명으로 폭넓게 구성됩니다.

그간의 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국 팰로앨토(Palo Alto)에서의 '법, 사법 및 기술에 대한 미국과 국제적 접근: 과거의 교훈과 미래 전략(U.S.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to Law, Justice and Technology: Learning from the past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202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제네바의 다자주의와 국제법(Like Clockwork?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Law in Geneva)', 2024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의 '바이킹부터 자율운항선박까지: 법의 과거, 현재, 미래(From Vikings to Autonomous ships: Past, Present and Future Law in a Norwegi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2025년 미국 휴스턴에서의 '세계를 향한 법적 관문(Space City Houston: Legal Gateway to the World, and Beyond)', 그리고 올해 영국 케임브리지의 '변화하는 정치와 법적 현실: 미래를 향한 승부수(Shifting Politics and Legal Realities – Taking a punt into the future)'에 이르기까지, 각 개최지의 특색과 결부된 법적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들 국제대회에서 공통으로 부각되는 핵심 화두는 당연히 사법 영역의 인공지능(AI) 혁신일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법률 서비스에 접목될 때 발생하는 허위 정보 생성, 즉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무분별한 웹 크롤링 데이터로는 법적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신력 있는 데이터(Ground-Truth)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즉, 방대한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과 법률자료를 정확한 서지정보와 표준 메타데이터로 정교화하는 '사법 데이터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IFLA의 '정보 평등권'과 IALL의 '국제 사법 교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재판 공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비식별화 기술을 사법 데이터베이스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판결과 사법 자료를 영문 서지 및 글로벌 표준 규격으로 가공함으로써 전 세계 법조계와 연구진이 한국 사법 데이터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의무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도서관의 지속적인 국제 학술 교류는 법과 기술이 격변하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식 자산을 가장 공신력 있는 형태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학술적·실무적 투자입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법률정보 시스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4 IALL

"똑똑~ 물품 배달왔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살림꾼
강수빈의 알뜰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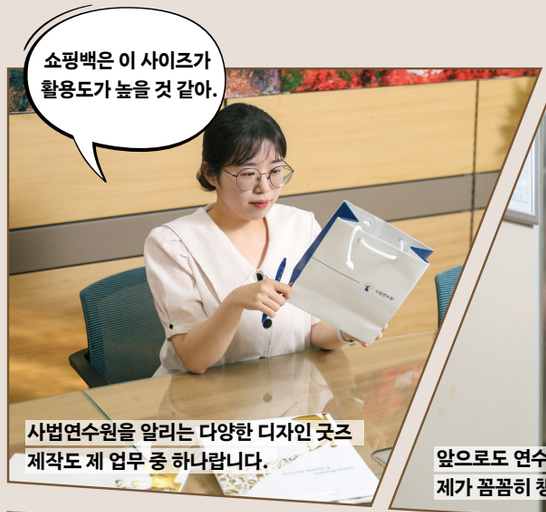
사진. 홍승진



















재무계의 만능 재주꾼
강수빈 주무관님 을 칭찬합니다!

Q. 기억에 남는 따뜻한 미담이 있다면?

처음 사법행정을 하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같은 재무업무를 하는 고양지원과 법원도서관의 담당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주면서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주변 직원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은 본받고 싶은 부분이에요.

Q. 주무관님은 평소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일도 똑 부러지게 처리하는 척척박사!
관서·원인행위·물품 전 분야를 통달한 올라운더 재무 플레이어에요.
힘든 업무에도 언제나 밝고 경쾌하게 연수원을 누비며
도움을 줍니다.

Q. 주무관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재주 많은 다람쥐

작고 귀여운 다람쥐처럼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아다니며, 사법연수원의 다양한 업무에
두루두루 큰 도움을 주는 만능 재주꾼입니다~

강아지 하나, 아이 둘, 행복 셋

글. 사법연수원 양승배 주무관









2020년 12월,
동그란 눈에 축 처진 귀, 손바닥만 한 몸에
아직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던
자그마한 래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우리 집으로 왔다.

작고 여린 몸으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는 그렇게 우리 부부의 품에 안겼고, 그날부터 잔디는 우리 부부의 첫 아이가 되었다.

그해 겨울, 산책을 나갈 때마다 잔디는 내 잠바 속으로 쏙 파고들어 안기곤 했다. 아직은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걷는 것보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더 익숙했던 꼬맹이였다. 잠바 지퍼를 살짝 열어두면 그 틈 사이로 조그마한 머리를 빼꼼 내밀고, 바깥세상의 냄새를 맡듯 코를 킁킁거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잠바 속에 들어온 작은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나는 그 조그마한 생명을 품에 안고 걷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런데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빨랐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에는 어느새 안아 올리기조차 버거울 만큼 훌쩍 커버렸고, 가을이 되자 오히려 내가 잔디의 목줄을 붙잡고 끌려다니는 쪽이 되어 있었다. 손바닥만 하던 강아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법 늠름한 성견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렇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처음 만났던 그 작은 강아지가 남아 있었다. 내 품에 쏙 들어오던 조그마한 몸, 잠바 속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던 작은 머리. 잔디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커버렸지만, 내 기억 속 잔디는 여전히 그때 그 작고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다.

물을 무척이나 무서워하던 잔디가 처음 수영을 배우던 날도 특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물가 근처에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강아지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더니, 잔디도 조금씩 물가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한 번 멈췄다가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던 잔디는 몇 시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마치 다이빙 선수라도 된 것처럼 신나게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옆에서 누군가 먼저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잔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서운 마음보다 궁금한 마음을 조금 더 앞세워 한 발 내딛던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그날의 잔디가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렇게 거의 4년 동안 잔디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가였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자연스럽게 잔디에게 향했고, 잔디 역시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하게 누리며 자랐을 것이다. 집 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잔디가 있었고, 잔디가 있는 풍경이 곧 우리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2024년 10월,
우리 집에 어여쁜 남매 쌍둥이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집 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조용하고 평온하던 집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 부부의 시선과 손길도 자연스럽게 두 아이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잔디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낯선 변화였을 것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찬 집 안에서 잔디에게도 분명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기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면 잔디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다. 마치 '나는 여기 조금 떨어져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도 잔디는
더 이상 신기한 강아지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고
저녁이면 함께 잠드는
너무나 익숙한 가족이 되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잔디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잔디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아들은 잔디만 보면 눈을 떼지 못했다. 아직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잔디를 발견하면 온몸을 들썩이며 꺄르르 웃었고, 어떻게든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어 했다. 그럴 때마다 잔디는 또 몇 걸음 슬쩍 물러났지만, 아이는 그런 잔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다가갔다. 어쩌면 짝사랑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잔디가 아직 아이들을 조금 어려워하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잔디를 향한 호기심과 애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두 돌 가까이 되었을 무렵,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이집 하원길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다.
"태양아, 한별아. 멍멍이 이름이 뭐야? 집에 멍멍이 가족 있다면서."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생님도 조금 의아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그림책 속 강아지도, 길에서 마주치는 강아지도 모두 '멍멍이'였지만 잔디는 멍멍이가 아니라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실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요즘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자주 보게 된다.



아이들이 잔디에게 다가가도 잔디가 예전처럼 황급히 몇 걸음씩 물러서지 않는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곁에 앉으면 잔디도 어느새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잔디의 털을 쓰다듬으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주기도 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피하던 잔디였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에게도 잔디는 더 이상 신기한 강아지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고 저녁이면 함께 잠드는 너무나 익숙한 가족이 되었다.

물을 무서워하면서도 결국 누구보다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잔디처럼, 두 아이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낯설고 두려운 순간들 앞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잔디를 그저 '멍멍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잔디'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시간에 우리 가족이 되었지만,
이제는 같은 하루를 함께하는 세 아이.
강아지 하나, 아이 둘.
우리 집의 행복과 웃음은 그렇게, 어느새 세 배가 되었다.





일상을 깨우는 가을의 안온함

글. 편집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길가를 채우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의 노래를 배경 삼아 가만히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합니다.
독서를 위한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차가워진 가을 공기 속으로 번져나갈 때,
바쁜 일과 속에서 잊고 살았던 일상의 감각도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가을의 안온한 감각에 오롯이 몸을 맡기고 싶은 날,
이효석 작가의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를 꺼내어 가만히 읽어봅니다.
작가의 펜끝에서 피어나는 가을의 생(生)은 우리 삶에도 활력의 빛을 비춰 줍니다.

타서 흩어지는 낙엽 연기 속에서 갓 볶아낸 커피나 잘 익은 깨금의 구수한 향을 맡아보는 일은
무심코 지나치던 가을 풍경을 새삼 다정하게 곁에 두게 합니다.
옷자락과 손등에 스며드는 연기 냄새마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새삼스럽게 발견해 내는 순정한 열정.
작가의 문장을 정성스레 따라 적으며 가을이 건네는 향기로운 숨결을 오롯이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문장: 가을을 써 내려가는 시간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제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깨금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리 속에 떠올린다.

-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중

필사를 위한 여백

(위의 구절 중 마음이 머무는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어 보세요.)

신화의 서사를 넘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역동적 모험

영화 〈오디세이〉

글. 편집실

때로는 오직 스크린이 주는 순수한 몰입과 역동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고 싶어질 때가 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고전이 지닌 묵직한 중압감을 털어내고 오직 영화라는 매체가 보여줄 수 있는 감각적인 연출과 압도적인 시각적 미학으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영화 〈오디세이〉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시간을 교차하며 시작되는 거대한 항해

영화는 트로이 목마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신들의 분노로 20년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그린다. 낯선 섬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와의 대화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를 하나씩 되짚어간다.

동시에 영화의 한 축은 오디세우스가 없는 이타카를 조명한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를 기다리며 왕좌를 노리는 구혼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는 왕비 페넬로페, 그리고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스파르타로 길을 떠나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외로운 싸움이 교차한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인물들의 서사는 극에 깊은 음영을 더한다. 영화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여정을 매끄럽게 교차시키며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귀향을 향해 달려간다.

10월의 서늘해진
공기 속에서 일상의
모든 잡념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한 만듦새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항해에 온전히
시선을 내어주길 바란다.

고전을 재해석하는 영화적 미학과 스펙터클

영화 〈오디세이〉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거대한 호평을 받는 이유는 원작 소설 『오디세이아』가 지닌 서사적 유산을 현대의 영화 언어로 탁월하게 전환해 냈기 때문이다.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 10년의 전쟁이 남긴 인간 내면의 상처를 조명하는 한편, 신화 속 존재들을 그리는 미감 또한 독보적이다. 여기에 스크린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신비로운 아우라는 극에 매혹적인 긴장감을 더한다. 컴퓨터그래픽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이즈의 실물 모형으로 구현해 낸 폴리페모스와 스킬라, 라이스트뤼고네스 등 괴물들의 기괴하고 압도적인 존재감 역시 돋보인다.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살려낸 아날로그적 질감은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텍스트로 존재했던 기나긴 세월과 시련의 묘사는, 아날로그 특수효과와 IMAX 연출을 만나 오직 극장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오싹하고도 흥미진진한 스펙터클로 탈바꿈하며 관객을 대서사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긴다.



영화 〈오디세이〉 스틸컷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시네마틱한 몰입이 선사하는 가장 완벽한 경험

영화 〈오디세이〉는 약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영화 예술 본연의 쾌감을 극대화한다. 고전의 거대한 호흡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학적 비주얼과 속도감 있는 스펙터클을 조합해 내는 감독의 정교한 연출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단 한 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신화의 한가운데로 매끄럽게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영상미와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들의 역동성은 관객에게 극장이라는 공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네마틱한 순간을 선사한다. 깊어 가는 가을, 10월의 서늘해진 공기 속에서 일상의 모든 잡념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한 만듦새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항해에 온전히 시선을 내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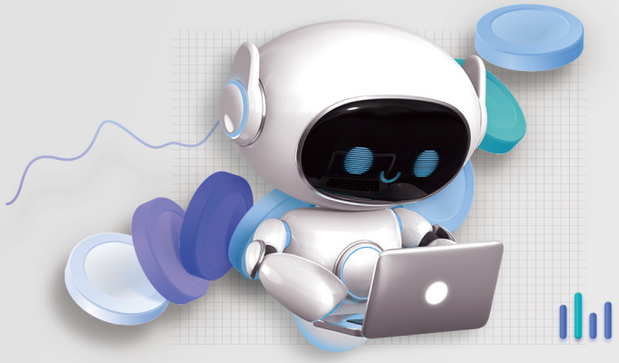
Movie Info

- 영화: 오디세이(2026)
-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출연: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외
- 줄거리:
  전쟁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영웅 오디세우스와, 20년 동안 그를 기다리는 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교차하는 귀향 서사.



혼자 검토하지 마세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문서 검토

글. 편집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맞춤법도 확인하고 문장도 다듬었지만, 막상 보내고 나면 빠뜨린 내용이 생각나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기도 한다. 내가 쓴 글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 AI에게 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든든한 동료 역할을 맡겨 보자. 단순히 어색한 문장을 고치는 것을 넘어, 처음 읽는 사람과 상대방, 실무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서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Step 1. 처음 읽는 사람의 눈으로 초안 점검하기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은 업무의 배경과 의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AI를 활용해 메일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보자.

- How to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메일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 Case
  "아래는 다른 부서 담당자에게 보내는 업무 협조 요청 메일이야. 처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고, 업무 내용과 요청 사항이 명확한지 확인해 줘. 추가로 궁금할 만한 내용도 찾아줘."라고 요청해 보자. 작성자에게는 당연했던 내용이 받는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ep 2.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서를 바라보기

AI에게 일부러 까다로운 검토자의 시선으로 문서를 읽어보게 하자. 이메일이라면 상대방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 How to 문서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우려와 반론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 Case
  "메일을 받은 담당자가 업무 부담이나 요청의 필요성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이나 불만을 5가지 찾아줘.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표현도 찾아줘."라고 요청해 보자. 예상되는 반응을 미리 확인하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Step 3. 실무자의 관점으로 빠진 내용 찾아보기

문서의 논리와 문장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좋은 문서라고 하기 어렵다. AI에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문서를 검토하게 하면 작성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적인 빈틈을 확인할 수 있다.

- How to 문서의 업무 목적과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실무자의 관점에서 빠진 내용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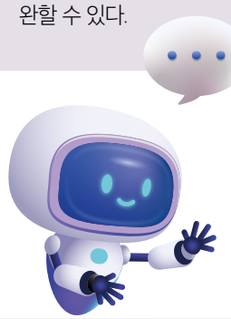
- Case
  "아래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줘. 일정·인력·예산·역할 분담 중 빠진 내용이나 확인할 사항을 찾아줘."라고 요청해 보자. AI가 찾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다.

Step 4.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최종 점검하기

한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같은 내용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I에게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살펴보게 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다.

- How to 서로 다른 독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문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내용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한다.

- Case
  "아래 보고서를 ① 부서장 ② 실무 담당자 ③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각각 검토해 줘."라고 요청한다. 이어 "세 관점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정해 줘."라고 요청하면 여러 검토자의 의견을 반영해 문서를 다듬을 수 있다.



좋은 문서는 단순히 문장이 매끄러운 문서가 아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정확하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우며, 예상되는 질문과 빈틈까지 충분히 고려한 문서다. AI에게 "잘 다듬어 줘"라고 한마디 하는 대신 독자와 검토자의 시선을 하나씩 바꿔가며 질문해 보자. 혼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메일과 보고서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법원 가족들과 함께한 33년

〈법원사람들〉이 500호를 맞이합니다



1994년 첫발을 뗀 〈법원사람들〉이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통권 500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법원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독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로 500호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채워주세요.

EVENT 1. 500호 축하 메세지

법원사람들 500호 발간을 축하하는
짧은 메세지나 응원의 한마디(50자 이내)

EVENT 2. '숫자 500' 그리고 나의 이야기

법원 생활이나 개인 일상 속 '500'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

예: 발령 후 500일째 겪은 잊지 못할 사연, 500페이지 분량의 기록과 씨름했던 기억, 우리 과 500m 달리기의 추억 등

EVENT 3. 다시 보고 싶은 기사 & 다시 만나고 싶은 인물

기억에 남는 기사와 그 이유 또는 다시 소식을 듣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

예: 202X년 X월호에 소개된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2018년 사보 인터뷰에 나왔던 OO법원 선배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등

참여 대상	전국의 모든 〈법원사람들〉 독자	**공모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11월 6일(금)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courtpeople@scourt.go.kr	**당첨 발표**	2026년 12월호(500호)

※ 참여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법원사람들〉 주인공?!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삶의 지혜부터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반려 가족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을 지면에 기록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법원사람들〉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참여 마감: 매월 10일
참여 방법: 이메일 접수 courtpeople@scourt.go.kr
※ 원하는 주제의 원고 1편, 관련 사진 5장 이상



법원의 노하우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일상, 취미, 청소 어떤 분야든 OK!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는 사소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꿀팁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우리집 진짜 주인



나만 보기 아까운 우리 집 귀요미를 법원 가족들에게 자랑할 기회! 일상에서 함께 웃고, 위로받고, 추억을 쌓아온 반려동·식물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반려동·식물과의 행복한 순간으로 〈법원사람들〉을 따스하게 채워 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보내주신 사진은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글솜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9 772951 224002 10
ISSN 2951-2247